



01 체코 “백신 안 맞아도 입국 가능”

한국인 여행자는 이제 백신을 안 맞아도 팬데믹 이전처럼 자유롭게 체코를 여행할 수 있게 됐다. 체코관광청은 한국인을 포함한 90일 이내 해외 단기 여행자가 체코 입국 시 내야 했던 온라인 사전입국신고서와 백신접종증명서 등의 제출 의무와 격리 등 조치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병원, 약국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하지만, 이 역시 점차 완화할 예정이다. 체코는 지난해 9월 세계관광여행협회(WTTC)가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안전 여행 스탬프'를 획득하는 등 안전한 여행지로 인정받았다. 지난 2월 15일에는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자들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 입국 절차 간소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02 일본여행업계 관계자들 한국 답사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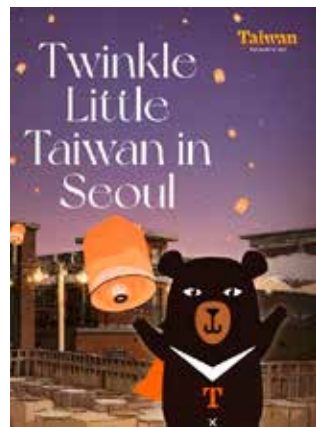


한국관광공사는 일본여행협회 임원과 회원사, 항공사 관계자 등 14명을 초청해 답사여행(팸투어)을 실시했다.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이번 방문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일 관광 교류가 중단된 지 약 2년 만에 이뤄졌다. 국내 주요 인기 관광지를 돌아보고 향후

여행 재개에 대비한 신규 상품 개발과 대형 고객 모집 캠페인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답사단은 서울 인기 관광지인 경복궁, 통인시장, 스카이 전망대와 함께 일본에서 크게 인기를 끈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와 '빈센조' 촬영지인 이태원 일대와 청계천 세운상가를 방문했다. 또 관광거점 도시인 강릉으로 이동해 미디어아트 전시관인 아르떼 뮤지엄과 하슬라 아트월드 등을 돌아본 뒤 한국여행협회 등 국내 여행업계와 간담회도 열고 향후 상호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03 대만관광청, 경의선숲길서 관광홍보 로드쇼

대만관광청은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대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관광 홍보 로드쇼를 열었다. 이번 로드쇼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 숲길의 한 카페와 옥상을 대만 현지 콘셉트로 꾸미고 특산품인 핑리수와 망고 맥주, 우육면 등을 제공해 방



문객들이 대만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대만어로 파인애플을 뜻하는 '핑리(鳳梨)'는 동사 '번성하다'(旺來)와 발음이 같아 대만 현지에선 번성과 풍요를 상징하는 과일로 여긴다.



04 태국 파타야, 아시아 3대 해양관광축제도시 선정

태국 파타야가 세계축제협회 주관으로 경남 통영시에서 열린 '해양관광축제도시 축제포럼'에서 한국 통영, 필리핀 세부와 함께 '2022 아시아 3대 해양관광축제도시'로 선정됐다. 세계축제협회 아시아 지부는 대륙별 축제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은 26개 지역 가운데 회의를 거쳐 후보 도시를 10개로 좁힌 뒤 온라인 설문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3개 도시를 선정했다. 파타야는 파타야 국제불꽃놀이로 해양관광축제도시에 선정됐다. 매년 연말 전 세계 불꽃 전문가들이 참가해 눈부신 불꽃놀이로 밤하늘을 밝힌다.



05 오스트리아관광청 비즈니스 세미나 개최

오스트리아 관광청은 지난달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2 오스트리아 비즈니스 네트워크 세미나'를 열었다. 오스트리아관광청은 세미나에서 관광청 지원 협업 프로젝트 등 오스트리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현재 오스트리아의 경우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진단서, 코로나 완치 증명서 중 하나를 제시하면 별도의 자가 격리 없이 오스트리아에 입국할 수 있다.



06 주한 이집트대사관, 투탕카멘 전시회 폐막식

주한 이집트대사관은 발굴 100주년 기념 특별전 '투탕카멘 : 파라오의 비밀' 전시회를 최근 폐막했다. 이집트대사관은 11개월 동안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던 전시회의 성공적 폐막을 기념하려고 여행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을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 이집트관광청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이만큼 많은 사람을 초청한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본격적인 여행 재개를 위해 시동을 거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1 서울신라호텔, 2년 만의 '대면 플라워 클래스' 재개

서울신라호텔은 오는 5월 26일까지 플라워 클래스를 진행한다. 신라호텔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지난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플라워 클래스를 소규모 모임으로 전환해 계절적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플라워 클래스는 최정상급 연예인과 유명인사의 결혼식 꽃장식을 도맡아 온 신라호텔 플라워팀이 진행하는 만큼, 올해 유행하는 꽃꽂이 콘셉트를 배우려는 고객들로부터 매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클래스는 호텔 19층에 있는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진행되며, 동시에 최대 5팀만 참여할 수 있다.

02 LG전자, 롯데호텔 월드에서 클로이 가이드봇 배치

LG전자는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호텔 월드에 'LG 클로이 가이드봇'을 공급한다. 가이드봇은 호텔 로비에서 호텔의 주요시설과 프로모션, 주변 관광지 정보 등을 안내하고 로비에 전시된 예술작품을 해설하는 도슨트의 역할을 한다. 가이드봇의 터치스크린에서 호텔 편의시설을 검색하면 로봇은 화면과 음성으로 위치, 경로 등을 안내해준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안내도 가능하다. LG 클로이 가이드봇은 방문객 안내, 광고, 보안, 도슨트 등이 모두 가능해 백화점, 박물관, 전망대, 지하철역, 호텔 등 다양한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면과 후면에 각각 27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맞춤형 광고판 역할을 하거나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심야시간대 출입자 감지 등 보안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03 티웨이항공 몽골 노선 신규 취항

티웨이항공은 6월 중 인천~울란바토르(몽골)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티웨이항공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몽골 노선 주 3회 운수권을 신규로 배분받았다. 티웨이항공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최근 도입한 대형기 A330-300을 투입할 예정이다. 티웨이항공 몽골 노선 취항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고객들이 다양한 일정과 합리적인 운임으로 해당 노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티웨이항공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 따라 몽골 노선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선에 좌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04 플라자 호텔, 가정의 달 '패밀리 패키지' 내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운영하는 플라자 호텔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패밀리 패키지 '키즈 핑즈 with 마이리틀타이거'를 내놨다. 8월 15일까지 운영되는 이 패키지는 마이리틀타이거 장난감들로 꾸며진 키즈 라운지와 객실 1박, 세븐스퀘어 3인 조식, 수영장 이용권 등이 포함돼 있다. 플라자 호텔 관계자는 "키즈 라운지는 약 70평 규모의 큰 공간과 시청 광장 일대가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도심 뷰를 자랑한다"면서 "다양한 놀이 기구도 갖추고 있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이는데 제격"이라고 말했다.



05 롯데호텔, 시니어 레지던스 'VL' 출시

롯데호텔이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인 'VL(브이엘)'을 선보인다. 롯데호텔은 "브이엘이 국내 최초로 호텔 기업에서 선보이는 시니어 레지던스 전문 브랜드로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주거단지에 접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호텔의 응대 서비스 노하우를 브이엘에 집약해 새로운 시니어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할 것"이라며 "24시간 응대 서비스 등 고품격 호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 단지 인근 대형 의료기관과 연계해 전문의료진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와 호텔 요리사가 관리하는 맞춤형 건강 식단을 제공한다.